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 국채통합계좌, 외환시장 등 제도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채투자 환경 개선 지속

FTSE 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3.27.(수) 16:00 (한국시간 3.28.(목) 05:00), 「'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은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다('22.9월 최초 등재).

* 금번 발표시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포르투갈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12년 WGBI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번 재편입

FTSE Russell은 지난 6개월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기존에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시행과 관련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무적인 제기사항 및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높게 평가하였다.

* FTSE Russell acknowledges the meaningful progress over the last six months, which is in line with the announced implementation target dates. FTSE Russell also recognises the commitment of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to address investor feedback regarding practic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forms.

정부는 그간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23.1월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도 '23.12월부터 폐지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국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년 6월에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할 계획이다. 외환시장의 경우, 금년 7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 시장 직접 참여 및 개장시간 연장(09:00~15:30 → 09:00~^{익일}02:0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시행을 앞두고, 금년 초부터 시범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허용 등 제도개선도 완료('24.3월) 하였다.

정부는 금년중 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 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도 편입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국고국 국채과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044-215-513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상 (parkjeongsang@korea.kr) |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Announcement (March 2024)

South Korea

South Korea will remain on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Watch List for the potential reclassification of its Market Accessibility Level from 1 to 2, and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FTSE WGBI.

In September 2022, South Korea was placed on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Watch List for a potential upgrade to a Market Accessibility Level of 2, and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FTSE WGBI.

Local market authorities continue to progress initiatives intend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South Korean government bonds for international investors, which would facilitate the fulfilment of the criteria for a Market Accessibility Level of 2. FTSE Russell notes the following developments since its last review in September 2023: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ICSD) Connectivity:** in August 2023, the Korean Securities Depository (KSD) announced that it had signed contracts with Clearstream and Euroclear to establish a link between the KSD and these ICSD platforms. In December 2023, it was further announced that the service is expected to be available by the end of June 2024. FTSE Russell notes that a prerequisite for the use of these platforms by international investors is a seamless withholding tax exemption proces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bonds. This appears to require further focus by the market authorities to resolve outstanding issues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certain investors.
- **Transition from the Investor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to the Legal Entity Identifier (LEI) registration scheme:** regulatory approval was passed on 05 June 2023 for the IRC abolishment. The implementation of Legal Entity Identifier (LEI) was implemented on 14 December 2023. Initial feedback received by FTSE Russell has generally been positive, although difficulties in corroboration have also been noted for certain types of funds.
- **Foreign Exchange (FX) market reforms:** the necessary approvals to enhance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er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revisions of relevant laws were finalised in 2023. A six-month pilot period for third-party FX commenced in early January 2024. FTSE Russell understands that participation is currently limited, but increasing. The planned implementation for relevant changes, including the extension of Korean won trading hours, is expected to extend through the second half of 2024.

FTSE Russell acknowledges the meaningful progress over the last six months, which is in line with the announced implementation target dates. FTSE Russell also recognises the commitment of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to address investor feedback regarding practic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forms. Ahead of its next scheduled review in September 2024, FTSE Russell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ond market towards the successful fulfilment of the criteria for Market Accessibility Level 2.

참고 2

WGBI 개요 및 편입 요건

- ① **[개요]** 총 25개국이 편입된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로 런던 증권거래소그룹 산하 'FTSE Russell*'에서 관리

*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

【 WGBI 편입국 현황 】

| | |
|----------|--|
| 북미(3)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 유럽(15)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24.3월) |
| 아시아 등(7) |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중국, 뉴질랜드 |

- ② **[편입요건]**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잔액, 신용등급, 시장접근성 세 가지 요건 만족 필요

- (정량조건: 韓 충족) ❶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 이상,
❷신용등급이 S&P 기준 A- 이상
- (정성조건: 韓 미충족) 시장접근성 Level.2 (韓 Level.1)

* 시장접근성은 외국인 투자에 불편이 있는지에 대한 FTSE의 주관적 평가 요소
→ 불편이 없는 경우 Lv2, 일부 불편이 있는 경우 Lv1 (Lv2>Lv1>Lv0)

- ③ **[편입절차]** ❶FTSE 협의 거쳐 관찰대상국 포함(매년 3, 9월)
→ ❷6개월이상 검토후 WGBI 편입결정(매년 3, 9월)

- ④ **[최근 사례]** 중국, '19.3월 관찰대상국 등재후 '21.3월 편입결정(2년 소요),
스위스, '21.9월 관찰대상국 등재후 '24.3월 관찰대상국 제외
뉴질랜드, '19.3월 시장접근성^{레벨2} 평가후 '22.3월 편입결정(3년 소요)

참고 3

시장접근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

| | 주요 제도개선 추진 현황 |
|-----------------------|---|
|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월,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위한 소득·법인세법 개정 ▶ '23.1월,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 '23.3월, 비과세 신청 특례가 적용되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인정요건 완화(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23.6월, 영문 FAQ 및 가이드라인 배포(국세청) ▶ '23.7월, 비과세 신청서식 등 영문서식 법제화(소득·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월, 예탁원-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간 MOU 체결 ▶ '23.8월, 예탁원-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간 계약 체결 ▶ '24.6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국채통합계좌 개통 예정 |
|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월,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23.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6개월후 시행) ▶ '23.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시행 <p>* <u>I</u>nvestors <u>R</u>egistration <u>C</u>ertificate</p> |
| 외환시장 제도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2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발표 ▶ '23.3월, 제3자 외환거래(FX) 가능 여부 명확화(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에 원화 및 외화계좌를 보유한 외국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과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 ▶ '23.7월, 제3자 외환거래(FX) 추가 편의제고(외국환거래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에 외화계좌 없이 원화계좌만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과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23.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별도 지침(기재부고시) 제정 →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참여 허용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u>egistered <u>F</u>oreign <u>I</u>nstitution ▶ '24.1월,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거래 시범운영 시행 ▶ '24.3월,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Overdraft)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제고 방안」 발표('24.2월) ▶ '24.7월, 외환거래시간 연장(09:00~15:30 → 09:00~^{익일}02:00) 시행 |